자신 믿고 밖으로 구하지 말라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㉙ 이오위칙(以悟爲則)

임제가 대중에게 말했다.

"요즈음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믿고 밖으로 구하려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모두가 부질없는 티끌 경계에 올라가 옛사람들의 언어 문자에 걸려서 도무지 그릇되고 바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조사가 있다' '부처가 있다' 하는 것은 모두 교(敎)에서 하는 말일 뿐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경전의 한 구절을 잡아내 그 뜻을 숨겼다 드러냈다 하면 바로 의심이 생겨 하늘을 비추고 땅을 비추어 허둥지둥 당황하여 딴 데로 찾아다니며 묻고 어쩔 줄 몰라 망연자실 하고 있느니라. 대장부들이여, 함부로 왕이 어떻다 도적이 어떻다 하며, 시비를 논하며, 여색과 재물을 논하는 등 쓸데없는 잡담을 늘어놓으며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산승은 이 자리서 승속(僧俗)을 구별하지 않고 찾아오는 자가 있으면 다 알아버린다. 그가 어떤 곳에서 온다 하더라도 말과 글귀로 하는 것은 꿈이요 허깨비일 뿐이니라."

임제가 또 대중에게 야단치듯 말한다. 자기 자신을 믿고 밖으로 찾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남의 공부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스스로 미혹한 길을 가지 말라고 한다. 부질없는 티끌경계(閑塵境)란 외부의 육진경계(六塵境界)를 일컫는 말이나 옛사람들의 말이나 글귀에 의존하는 폐단을 두고 한 말이다. 실참실오(實參實悟)의 경지는 방편상의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선(禪)은 말 있는 곳을 떠나 말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라 한다. '조사가 있다'느니 '부처가 있다'느니 하는 말도 교의 자취라 일축해 버린다. 출격대장부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찾는 일 뿐이라는 뜻에서 왕이나 도적에 대한 이야기, 시비를 논하는 이야기, 재색(財色)에 대한 이야기 등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하였다. 말하자면 나라의 정세나 사회적 이슈에 민감해지지 말라는 말로 공부하는 사람은 세속 이야기나 정치적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주의를 주고 있다. 무엇보다는 깨달음을 위해(以悟爲則)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본분공부에 몰두하는 자가 세속적 대인관계나 사회적 문제에 나서는 걸 좋아하고 자신의 공부를 뒷전으로 하지 말라는 충고는 수행자의 근본 본질을 먼저 챙기라는 뜻에서 한 경책의 말이다.

〈사문불배왕자론〉을 지은 동진(東晉) 때의 혜원(慧遠 · 334~416)은 세속을 떠난 사문들은 왕이나 제후들에게 예를 갖춰 절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그 당시 동진의 태위였던 환현(桓玄) 등이 사문의 집단도 신하된 도리로 왕에게 마땅히 예경을 하여 절을 해야 한다고 한 주장을 반박하면서 쓴 책이다. 혜원은 이 책에서 몇 가지 논지를 피력했다. 먼저 출가의 본질을 밝히면서 출가자의 생활은 세속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불도를 구하는 수행자는 세속을 따라서는 안 되며 세속생활을 부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육체는 일생을 마치면 죽지만 정신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불도를 닦는 사람은 그 뿌리를 견고히 지켜야 하며, 세속의 권력과는 조금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천명했다.

이러한 혜원의 〈불경론〉의 정신은 출가자의 기백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후대의 왕조들이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고부터 시대의 변천에 따라 권력과 타협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절대 권력에 의한 탄압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적 풍토 속에 출가의 위상이 약화 될 때는 양보와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난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출가 사문의 순수한 정신을 지키며 그 이상(理想)을 달성해 보고자 했던 불배(不拜)의 정신이 한때의 논쟁의 역사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반대로 국왕이나 권력자들이 덕이 높은 고승에게 예배를 한 사례도 많았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佛性의 무량한 공덕



세상 속 경전읽기

㉙ 오지여래(五智如來)

우리 모두는 불성(佛性)을 지니고 있다. 불성의 공덕은 무량하다. 무량공덕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것이 열반이다. 열반은 번뇌가 다 멸해버렸으므로 멸도(滅度)이고, 영생이므로 불생(不生)이다. 생자필멸(生者必滅)이므로 불생(不生)이어야 영생이 되는 것이다. 열반은 또 지극히 안락하므로 극락(極樂)이며, 얽매임 없이 자유자재이므로 해탈이다. 이를 네 가지로 정리한 것이 열반의 네 가지 공덕[四德]인 상락아정(常樂我淨)이다.

열반사덕에서, 상덕(常德)은 항상 변함이 없고 생멸이 없음을 말하고, 낙덕(樂德)은 무위안락함, 곧 인연생멸을 떠난 안락함이다. 아덕(我德)은 신통묘용(神通妙用)이 크게 자재로운 8대자재아(八大自在我)인 것이고, 정덕(淨德)은 일체 번뇌의 오염을 벗어나 청정한 것이다.

팔대자재아는, '1) 능히 한 몸이 여러 몸이 됨. 2) 한 티끌 몸이 대천계를 가득 채움. 3) 큰몸을 가볍게 들어 멀리가게 함. 4) 무량한 종류를 나타내 한곳에 머물게 함. 5) 6근을 서로 교차 사용함. 6) 일체법(일체현상)이 무법상과 같음. 7) 한 게송의 경을 무량겁동안 설함. 8) 몸이 모든 곳에 두루 편만(遍滿)하여 허공과 같게 함.' 등이다.

불성의 무량공덕은 간추려 오지(五智)로 나타낼 수 있는데, 1) 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 · 제9 암마라식(菴摩羅識), 곧 정식(淨識)을 전(轉)한 바로서, 법계의 모든 현상의 차별적인 모습의 본성인 법계체성(法界體性)이 곧 육대(六大)라 육대법계(六大法界)의 삼매에 머무름을 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라 함], 2) 대원경지[大圓鏡智 · 제8 아뢰야식(阿賴耶識)을 전(轉)한 바로서 법계의 만상(萬象)을 현현(顯現)함이 대원경(大圓鏡 · 커다란 둥근 거울)과 같은 지(智)], 3) 평등성지[平等性智 · 제7 말라식(末那識)을 전(轉)한 바로서 제법평등(諸法平等)의 작용을 이룩한 지(智)], 4) 묘관찰지[妙觀察智 · 제6 의식(意識)을 전(轉)한 것으로서 제법을 묘분별(妙分別)하여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고 설법(說法)하여 의심을 끊어주는 지(智)], 5) 성소작지[成所作智 · 안식(眼識) 등의 전오식(前五識)을 전(轉)한 바로서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묘한 일을 성취한 지(智)]의 다섯 가지 지혜이다. 이 오지는 결국 전5, 6, 7, 8, 9식을 지혜로 바꾼 것[轉識得智]이다.

불성이 현현한 것이 열반이므로, 불성공덕과 열반사덕은 같은 것이므로 서로 배대될 수 있으며, 법계체성지는 총덕[總德 · 열반사덕을 합친 것]에, 대원경지는 아덕에, 평등성지는 낙덕에, 묘관찰지는 상덕에, 성소작지는 정덕에 각각 배대된다.

오지 각각을 갖추어 인격화한 것이 오지여래로 위의 각 지혜의 순서대로, 1) 비로자나불, 2) 아축불, 3) 불공성취불, 4) 미타불, 5) 보생불이 오지여래이다. 이상은 중생이 성불을 향해 나아가는 상전문(上轉門)이고, 붇다가 중생을 제도하는 하전문(下轉門)에서는 평등성지가 보생불, 성소작지가 불공성취불에 배대된다.

"동방의 아축불(阿閦佛)은 대원경지(大圓鏡智)[또한 금강지(金剛智)]로 인해 이룩되고, 남방의 보생불(寶生佛)은 평등성지(平等性智)[또한 관정지(灌頂智)]로 말미암아 이룩된다. 서방의 미타불(彌陀佛)은 묘관찰지(妙觀察智)[또한 연화지(蓮華智), 전법륜지(轉法輪智)]로 말미암아 이룩된다. 북방의 불공성취불(不空成就佛)은 성소작지(成所作智)[또한 갈마지(羯磨智)]로 말미암아 이룩된다. 중앙의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은 근본이 되는 법계지(法界智)로 말미암아 이룩된다."〈金剛頂瑜伽中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論 T1665_.00.0573c24-c29〉

금타대화상의 〈금강심론〉 '제1편 1인전에 1인도 제2장 보리방편문 제4절 오지여래'에, "(법보화 삼신일불인) 아미타불은 법계체성인 1법신에 평등성으로 묘관찰하는 대원경적 능지(能智)보신과 성소작의 소지(所智)화신을 겸(兼)하고 사지(四智)에 만덕(萬德)을 함께 갖추니라"고 오지(여래)와 삼신의 관계를 명쾌히 정리하고 있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㉕ 닦음의 길 15

二入四行, 진리 이르는 두 길

널리 알려진 것처럼 보리달마(菩提達磨)는 선불교를 중국에 전한 인물이다. 선(禪)이 전래되면서 적지 않은 오해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선불교가 언어, 문자를 부정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오해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전통에서 기인한 것 같다. 선에서는 문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서(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선에서 부정하는 것은 언어, 문자가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문자에 머무는 한 결코 진리라는 달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교학(敎學)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標月之指), 즉 방편이다. 붓다의 말씀을 담은 수많은 방편을 통해 달을 볼 수 있다면 이는 부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일이다.

이입사행(二入四行)은 선이 교학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달마의 수행체계다. 이것은 진리에 들어가는 두 가지 길과 네 가지 수행을 의미한다. 먼저 두 가지 길이란 이치를 통해 불법의 대의를 깨치는 이입(理入)과 수행에 의지해서 진리에 들어가는 행입(行入)을 가리킨다. 달마에 의하면 이입(理入)은 경전을 통해 모든 중생이 부처와 똑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굳게 믿는 것이다. 다만 번뇌, 망상이라는 먹구름이 붓다의 성품을 가리고 있으므로 벽관(壁觀) 수행을 통해 이를 걷어내야 한다. 그러면 나와 너, 범부와 성인이 모두 하나라는 것을 깨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깨침은 자교오종(藉敎悟宗), 즉 교학에 의지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달마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입만으로 깨침에 이를 수는 없다. 여기에는 반드시 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리에 들어가는 두 번째 길인 행입(行入)이다. 달마는 네 가지 수행(四行)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보원행(報怨行)이다. 이는 상대에 대한 원망이나 증오의 마음을 내려놓는 수행이다. 누군가 자신을 힘들게 하면 대개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마음을 텅 비우는 일이다. 지금의 상황은 과거 자신이 행한 업보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움의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행자의 큰 적인 미움과 원망을 지혜롭게 대치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수연행(隨緣行), 즉 인연 따라 살아가는 일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因緣生) 인연이 다하면 소멸하는(因緣滅) 다이내믹한 과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의 실상을 잘 살펴서 순간순간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뜨거운 여름과의 인연도 소멸해야 아름다운 가을 단풍과 만날 수 있고, 가을과도 이별해야 눈 내리는 하얀 겨울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장자〉의 '인연따라 자신의 삶을 즐기라(隨緣樂命).'는 가르침과 통한다. 수연행은 상황에 먹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수행이다.

세 번째는 무소구행(無所求行), 즉 구하는 바 없이 실천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空)하며, 인연 따라 생멸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무소구행은 이러한 이치를 살펴서 세속적인 욕망과 자신에 대한 집착을 다스리는 수행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칭법행(稱法行)으로 이것은 모든 것을 진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와 너, 중생과 부처가 본래 '하나'임을 밝게 깨쳐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利他行)을 실천하는 일이다. 여기에도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연기의 진리가 작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달마는 언어, 문자로 이루어진 경전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깨침의 길을 가는데 중요한 안내서로 인식하였다. 그는 특히 〈능가경(楞伽經)〉을 중시했다고 전해진다. 다만 교학에서 그치고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깨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벽관 수행을 강조한 것이다. 벽(壁)은 바람을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 달마는 번뇌, 망상이라는 바람을 막고 우리 모두가 부처 되는 진리의 길을 보여준 것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